

조민기
작가 · 칼럼리스트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 1 – 들어가며

문화 포교사 역할 톡톡히 하는 신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신화나 전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나 민족을 보면 안쓰러운 생각이 든다. 반면 아무리 약소국이라 할지라도 신화나 전설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를 보면 부러운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 대륙에 살면서 아름다운 신화를 지키며 살아온 홍인족(紅人族)을 멋대로 '야만인' 혹은 '인디언' 이라 부르며 말살시킨 뒤 세운 미국은 족보 없는 졸부 같고, 수많은 신들의 고향이었었던 그리스는 가난해도 명예로운 것 같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으로 나의 시선이다.

오늘날 신화와 전설은 단순한 정체성 확립이나 전통 보존의 의미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 로 활용되며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자연스럽고 거부감이 들지 않게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신(神)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공산주의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방을 하자마자 문화와 전통을 상업화하는데 천재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을 보자. 온갖 야담이 기록된 고서(古書) '요재지이' 속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한 〈천녀유혼〉 하나를 가지고도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영화팬들을 매료시키지 않았던가. 아름다운 요괴와 어수룩한 인간 남자의 사랑 이야기 속에는 시신을 매장하고 제사를 지내주는 유교, 부처님의 경전으로 귀신을 제압하는 불교, 부적과 환술로 요괴를 퇴치하는 도교에 민간 설화까지 모두 섞여 있지만 이를 종교로 바라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룰 수 없는 가슴 아픈 인연의 절절함에 눈물지을 뿐이다.



고천락, 유역비가 주연을 맡은 '천녀유혼(2011)'. 천녀유혼에는 유교, 불교, 도교뿐 아니라 민간 설화까지 모두 섞여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지를 이룬 일본은 어떤가. 다소 스케일이 작은, 내수용 신화와 전설, 설화들은 그대로 잘 보존하는 한편 인지도가 높은 중국의 이야기들을 소재로 새로운 작품들을 척척 만들어낸다. 중국의 고대소설 〈서유기〉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최유기〉에서는 여자를 좋아하는 바람둥이의 욕망에 충실한 '저팔계' 야말로 현대사회와 가장 잘 어울리는 매혹적인 캐릭터임을 보여주고, 후한 말기 혼란스러웠던 난세를 배경으로 하는 〈삼국지〉로는 게임을 만들어 수많은 중독자와 폐인을 양성하고 있다.

또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자. 기독교에서 신의 아들은 예수님 단 한 명뿐이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의 아들과 딸은 넘쳐난다. 하지만 여기에 이단이라고 불만이나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신데렐라에서 요정이 호박을 마차로 만든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지하게 주장하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계속〉

조민기는 …

한양대 문화인류학과를 졸업해 영화사를 거쳐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외조 - 성공한 여자를 만든 남자의 비결〉가 있으며 현재 세계일보에 〈꽃미남 중독〉과 〈외조의 기술〉을 연재중이다.

〈제석과 함께 떠나는 신화 여행〉은 불법을 수호하는데 힘과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은 제석천왕을 비롯한 신들의 이야기이다.

이현정 소장의 **이제는 다문화시대** 1

다양성과 가장 잘 맞는 불교가 다문화에 앞장서야

이 세상의 색(color)이란 셀 수 없을 만큼 그 폭이 방대하다. 미묘하고 미세한 부분의 차이로 사람이 지각할 수 없는 색들로 인해 감히 우리가 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인간의 한정된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은 380~780nm(나노미터:100만분의 1m)인데 이 안의 색들은 볼 수 있다 해서 가시광선, 가시영역이라고 할 뿐이다. 빛이 생명활동에 불가피한 에너지임은 당연한 진리이다. 그 빛은 파장을 갖고 있는데 그 파장의 변화에 따라 에너지의 강도도 달라지고 색도 다르게 보인다. 이 세상 전체에 색이 있다는 의미는 존재나 물체마다 자기가 필요한 색과 빛을 흡수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모든 존재와 물체 즉 만물에는 수많은 색채가 존재한다. 다양한 색의 존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또한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

우리의 문화가 복잡하게 섞여야 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다문화사회가 주는 사회의 음적인 문제, 양적인 문제는 뒤섞이고 혼재되면서 문화와 사회는 자기자리를 잡아간다. 서로 다른 피부색은 실제로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게 한다. 검은색이 주는 느낌과 흰색이 주는 느낌이란 엄연히 다른 것도 사실이다. "색은 빛과 어둠의 혼합에서 만들어진다" 라고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천명했듯이, 다양성에서 나오는 최고의 조합이 우리의 삶의 단상이다. 우리가 다문화사회에서 피부색 그 하나만으로 사람을 견주는 잣대는 허무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 삶은 다양성에서 나오는 최고의 조합
불교는 이미 부처님 당시부터 다문화세계 포효

똑같은 음악을 하루 종일 그리고 한달 내내 듣는다고 생각해보자. 맛있는 음식이라 해서 한달 내내 혹은 일년 내내 그것만 먹는다고 생각해보자. 좋은 향기라고 내내 그것만 맡는다면 아마 돌아버릴 것이다. 금새 지겨워지고 생각만 해도 구토가 날 것이다. 그러나 문화의 핵심이 되고 있는 종교의 영역만큼은 그 뿌리가 너무나 깊고 질겨서 다문화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더욱 더 자기만의 성을 쌓아가고 있다. 다른 종교인들이 비아냥대기라도 하듯이 불교는 이 빗장을 허문지가 무척 오래되었음에도 오히려 자기자리마저 빼앗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빼앗기는 것도 당연한 듯 아무런 감각 없이 앉아만 있는 모양새이다. 적어도 다문화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다. 부처님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평등한 다문화세계를 포효한 것이다. 너와 내가 똑같이 두루두루 세상을 올곧게 살아가자는 말씀이었다. 심지어 유일신이 주는 공포심과 맹목적 충성심도 강요하지 않았다. 모두가 자유인이고, 자기숙련과 자기책임을 인지하도록 깨우쳐주었다.

이러한 풍요로운 다문화세계를 맛보게 해주었지만, 갇혀서 메이고 유일한 것에만 길들여진 인간들은 이 깊은 진리에 적응하기 힘들어했다. 유일신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그저 의지만 하면 된다는 편안함과 안이함으로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인간들에게 오히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계속〉

이현정 소장은…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을 졸업했다. 불교방송국 아나운서 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타니아 커뮤니케이션 대표, 서울디지털대학 겸임교수, 한국다문화센터 연구소장, 레인보우 합창단장을 맡고 있다.



일묵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이야기10 – 지혜(智慧)

지혜는 있는 그대로 보게 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선입견을 버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균형이 잡힌 시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탐욕이나 성내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상대에 대해 탐욕이 일어나면 상대의 원하는 측면을 보려고 할 것이고 성냄이 일어나면 상대의 나쁜 모습만을 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음이 대상과 만날 때도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해 탐욕이나 성냄이 없어야 한다. 앞서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심리현상이 알아차림(sati)라고 설명했다.

알아차림(sati)이 마음을 잘 보호해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할 수 있다. 이때 대상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심리현상을 지혜(paññā, 智慧)라고 한다. 그러면 지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

첫째, 지혜는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아는 것이 특징이다. 대상을 잘못 아는 것이 어리석음이라면 지혜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여 대상의 본성을 바로 꿰뚫어 안다.

불교수행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계발
고요하게 마음을 집중해야 지혜 생겨

둘째, 지혜는 대상의 본성을 덮어서 대상을 잘못 아는 어리석음을 쓸어버리는 역할을 한다. 지혜는 대상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기 때문에 대상을 왜곡하고 잘못 알게 하는 어리석음을 사라지게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 라고 인식하는 것의 본질을 꿰뚫어 알지 못하면 '나' 가 영원하고 실재한다고 생각하는 전도몽상이 일어난다. 하지만 지혜로써 '나' 의 본질을 통찰해보면 '나' 는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고 물질과 정신은 순간순간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나' 의 본질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통찰하게 된다.

조금 더 깊이 통찰하면 변하는 것에는 고정 불변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라고 할 만한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통찰은 '나' 라고 불리어지는 개념에 속아서 '나' 라는 것이 영원하다거나 실체가 있다고 믿는 전도몽상을 버리고 '나' 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보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이라고 추구하는 것들도 지혜로써 통찰해보면 그것들이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고 믿을 수 없다. 이런 불안정한 것에 의해 항상 압박을 받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다. 이런 통찰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행복이라는 전도몽상을 버리고 본질적으로는 괴로움이라는 진실을 보게 한다.

이처럼 지혜는 어리석음으로 인한 전도몽상을 사라지게 한다. 이로써 더 이상 괴로움을 행복이라 생각하거나 행복을 괴로움이라 생각하는 전도된 마음으로 헛된 노력을 하지 않고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행복을 행복으로 보는 바른 노력을 할 수 있다. 이런 바른 노력만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끝으로 지혜가 생기는 주된 원인은 고요하게 집중된 마음이다. 고요하게 집중된 마음은 마치 맑고 고요한 호수의 물과 같다. 호수의 물이 맑고 고요하면 달이나 해가 조금도 찌그러지지 않고 호수에 비친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맑고 고요하면 현상들의 본성이 왜곡됨이 없이 그대로 비치게 된다. 그러면 현상의 본성을 쉽게 꿰뚫을 수 있다. 이처럼 고요한 마음은 지혜가 일어나는 주된 원인이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혜는 어리석음으로 인한 전도몽상을 버리고 진리를 보게 해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세상의 본질이 괴로움임을 이해하게 되고 세상이 괴로움임을 이해하게 되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열반을 증득하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불교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의 계발이다.



일묵 스님(제따와나 방배선원장)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국제 선 불교 조계종

회장 : 목탁 혜은 부회장 : 금당 법성

포교원장 : 불도 천장 교육원장 : 현담 송광 감찰원장 : 일해 공심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011-229-6061

LEADER

미얀마 양곤 신도시 나인따야에 위치한 5만평 대지

코리아 기술 종합 대학교



2010년 12월 12일 신축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학교 관리자는 미얀마 종교성 장관이 자동으로 선임되고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에서 운영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후진국 빈곤 청소년들에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바꾸어 주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생의 지팡이가 되시고자 하시는 참다운 불자, 숨은 봉사자를 찾습니다.

초 빙 안 내

총장, 명예 교수 겸 운영이사

자 격 : 부처님의 제자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 1년에 1주일이상 학교에 머물며 학교 건축 및 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할 모든 종단 및 남녀불문하고 스님 및 재가자를 모시고자 하며, 총장 선임자는 교육계 정년 퇴임자 중 헌신 봉사할 불자를 찾습니다.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외교법인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이 사 장 목탁 혜은 합장 대표 전화 02)733-5665, 011-229-6061

국 제 불 교 지 도 자 협 회